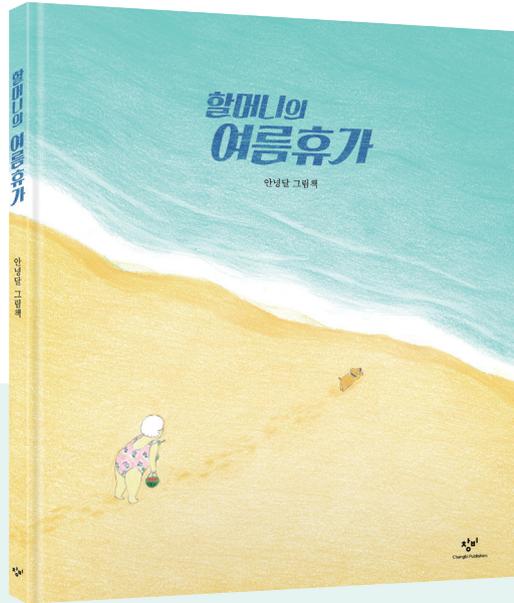


자연 탐구

어느 날, 할머니에게 찾아온 뜻밖의 여름휴가  
한여름을 시원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상상력



## 할머니의 여름휴가

안녕달 그림책 | 창비 2016

어느 여름날,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벌어진 마법 같은 사건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낸 그림책이다. 손자에게 바닷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선물 받은 할머니는 고장 난 선풍기를 들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강아지 메리와 함께 소라 속으로 여름휴가를 떠난다. 넓고 푸른 물결, 짹짹하게 내리쬐이는 햇볕, 고운 모래사장 등 무더위를 잊게 할 만큼 청량감 가득한 바닷가가 펼쳐진다. 할머니가 갈매기와 수박을 나누어 먹고, 모래 위에서 바다표범과 뽕굴며 햇볕에 살을 태우는 모습은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동시에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긴다. 따뜻한 상상력으로 혼자된 할머니의 정서를 어루만지며, 소외된 이들에게 시원한 여름휴가를 선물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.



## 다른 그림 찾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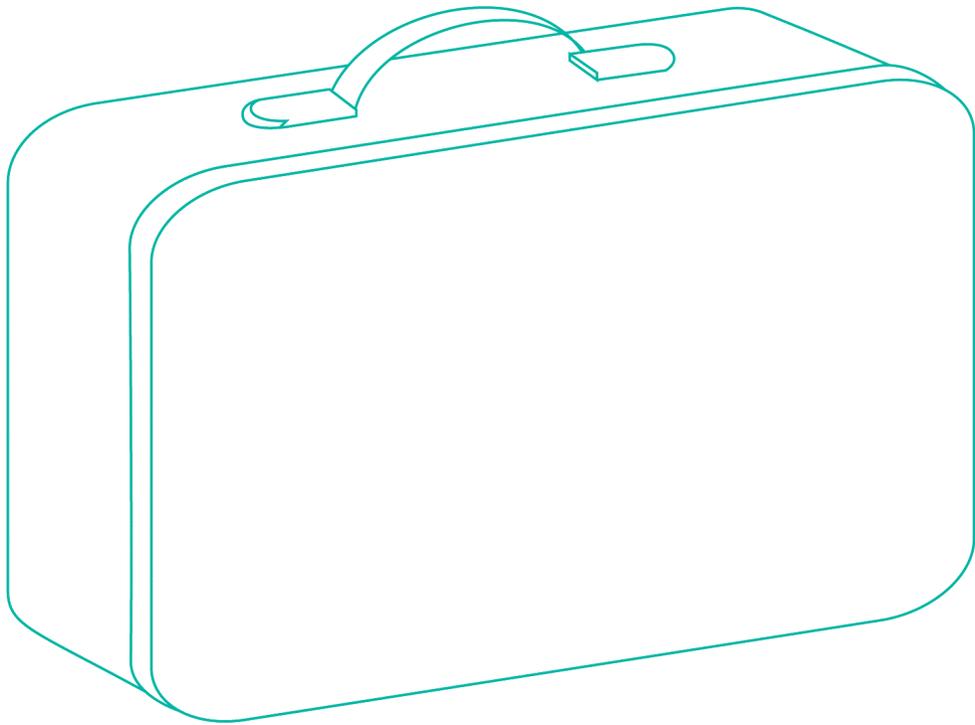
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 
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,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는지 상상해 봅시다.





# 나만의 여름휴가

여러분이 여름휴가를 떠나게 된다면 무엇을 챙기고 싶은가요?  
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그리고 이유를 써 보세요.



물건	
이유	